

IRP 개인형 퇴직연금 단점

예, 적금에서는 떼지 않는 0.5% 가량의 수수료를 매년 댄다.

일반 예,적금의 경우 자신의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이자를 주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통장의 돈은 위험도가 높은 펀드에 굴릴지 확정이자의 안정적인 상품을 굴릴지 예금주가 직접 선택해야 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매년 통장 잔액의 0.5%를 떼어간다."

② 만약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그 돈을 1년에 0.1% 남짓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 두기도 하는데 때문에 IRP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을 이번 달에는 어떤 펀드에 넣을지 선택해야 매년 떼어가는 0.5%의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RP 상품들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시뮬레이션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혜택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을 합해서 1,200만원 이하는 최대 5.5% 원천징수된다고 한다.

예제) 6천만원 25년 납입(종신타입 수령)

월 250,000원 - 연금소득세 차감액 11,000원(종신타입 연금 4.4% 원천징수) = 월 239,000원 수령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IRP의 경우 은행에 운영 수수료를 매년 따로 차감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최저로 0.5%~0.7% 정도 차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첫해 최대 300만원을 넣었을 때 0.4%를 계산하면 12,000원

~~중요한~~ 2년째 최대 300만원을 넣으면 앞에 300만원을 합해서 600만원에 0.4% 계산하면 24,000원

20년 누적액으로 계산해보니까 2,520,000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급된다.

매년 연말정산 혜택받는 세액공제가 연간 396,000에 20년을 곱하면 최대 공제받는 건 7,920,000원.

운영수익은 아래표를 참고로 운영수익 0.5% 3,150,000원으로 계산